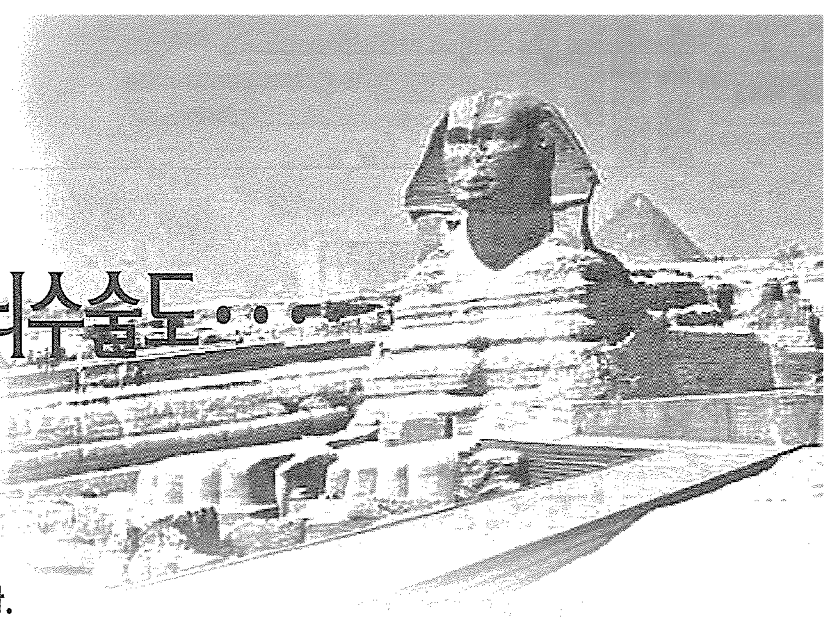
지질과학의 세계

이집트선 5천년 전 뇌수술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화석을 통해 추정한다.
사람의 먼 조상은 4백만년 전에 나타났고
이집트에서는 5천년 전 뇌수술을 한 흔적이
당시의 두개골에 나타나 있으며
남아메리카 원주민들도 흑요석 칼로 뇌수술했다.**

화석을 통해 보건대, 사람의 먼 조상이 지금부터 약 4백만년 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직계조상이자 돌도구를 처음 썼던 호모 하빌리스는 약 2백50만년 전에,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Homo sapiens sapiens)는 10만년 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수렵을 하던 원시인 한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략 1제곱마일 내에 사는 짐승이 필요해서 예컨대 이시기 북아메리카에는 사막과 극지와 고산지대를 뺀 평지에 약 1백만명이, 1만5천년 전에는 지구 위에 약 5백만명이, 1만년 전 농업을 시작할 때쯤 지상에는 약 1천만명이 있었을 것이다. 터키 남동쪽 유프라테스강-티그리스강 유역에서 밀 계통의 곡식류와 무화과와 포도 계통의 과일류 재배 등으로 농경이 시작되면서 오늘날 보는 것과 비슷한 사회체계와 선과 악이 생겼다고 믿어진다. 곡식은 고기와 달리 장기간 저장이 되고 기후의 절대영향을 받는 바, 식량을 둘러싸고 힘과 권력과 성별 차이, 노예, 전투, 지배자와 피지배자, 원시국가제도가 생겼던 것이다.

이집트선 5천년 전에 이미 뇌수술

이에 따라 개가 가장 먼저 약 1만2천년 전 인간의 친구가 되었으며 1만년 전 염소와 양이 이어서 소와 돼지가 근동에서 인간의 친구가 되었다. 재갈에 닳은 말 이빨이 그 사실을 말해주듯 말이 약간 늦게 남부러시아에서 6천년 전 길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의 재갈은 구리가 아닌 뼈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집트에서는 5천년 전 뇌수술도 했고 그 수술에서 치유된 흔적이 남은 당시의 두개골로도 알 수 있다. 남아메리카 원주민들도 흑요석 칼로 뇌수술을 했다.

여자도 다른 동물의 암컷처럼 생명력이 강해 인류가 지금은 60억명이 넘었다. 여자의 생명력이 남자의 생명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여자가 오래 살고 또 마취에서 먼저 깬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데 남자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남자를 항상 붙잡아두기 위하여 동물과 달리 발정기가 없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남자는 자식을 만들기만 하지 그 자식을 뱃속에서 또 몸 밖에서 키우는 것은 여자의 일이다.

사람은 뇌보다 사지가 늦게 발달한다. 예컨대 걷는데 1년이 걸리고 성이 성숙하는 데 15~20년이 걸리는 척추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반면 인류와 아주 비슷하다는 침팬지의 뇌 용적이 불과 4백cc로 인간 뇌용적의 3분의 1도 안된다. 그래도 3년 정도면 어미에서 떨어지고 몇년 지나면 새끼도 낳는다. 만약 인류가 진화해 뇌 용적이 2천cc가 된다면 머리가 커져 여자의 골반이 커질 것이다. 또 걷는데 4~5년이 걸리고 어른이 되는 데 40~50년이 걸릴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곡식을 주로 먹어 고기를 주로 먹는 서양인보다 내장의 길이가 길다. 그러나 최근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소화된 변이 빨리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해 독소가 몸 안으로 퍼져 대장암과 성인병이 많아진다고 한다. 식품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빨리 바꿀 수 있지만 내장과 생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진화하면 대장암이나 성인병이 적어질 것이다. 내장이 짧은 사람이 병에 덜 걸리고 자식을 많이 낳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진화의 시작이므로 고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ST

蔣舜槿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